

# 북한의 박물관과 문화유산

유홍준(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 김일성 광장 좌우의 두 박물관

오늘은 박물관에 가는 날이다. 외국 여행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했듯이 한 도시의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박물관이고, 생각밖으로 힘든 것이 박물관 관람이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는 날이면 나는 임전태 세를 갖추듯 든든히 먹고 간다.

우리가 묵고 있던 서제동 초대소의 3등 요리사 박인해군은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착한 것을 넘어 무공해처럼 맑았다. 그래서 조식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맛있는 밥상 못지 않게 즐거웠다. 그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릴 때면 무슨 반찬이든 3등 요리사답게 요리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일러준다. 그럴 때면 나는 거의 반드시 농담으로 받았는데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늘은 콩나물국에 장조림하고 닭알(달걀)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단장 선생은 좋아하는 것이지만 오늘 고된 일정에는 야단이구나. 인해 동무, 나는 밥 한 그릇 더 먹어야겠소.”

“그러십니까? 근데 어딜 가시기에 그렇게…….”

“오늘은 박물관에 간다오.”

“박물관에?”

인해 동무는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이내 웃음으로 받는다.

“인해 동무도 박물관에 가봤지요?”

“중앙역사박물관 말입니까? 수도 없이 갔습니다. 고등중학교 다닐 때 역사시간에 박물관에 자주 갔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인해 동무의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다는 몰랐다. 북한 정부는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서, 그리고 문화유산을 통한 애국주의 배양의 장으로서 박물관을 매우 비중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왔다. 그것은 전국 각 도에 역사박물관을 설치하고 평양에는 특별히 조선중앙역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으로 나누어 설립한 것에서도 엿보이며, 도시계획상 두 박물관의 위치 설정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의 원로 고고학자로 도쿄대 교수를 역임한 사이토 다다시는 『세계의 박물관 탐방』이라는 저서의 저자이기도 한데,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고 쓴 『북조선 고고학의 신발견』(1996년, 도쿄)이라는 저서 말미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박물관은 그 나라의 얼굴이고, 그 도시의 얼굴이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도 북조선의 얼굴이고 평양시의

얼굴이다. 그런데 평양시의 중심지인 김일성광장의 양측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자리 설정은 세계의 박물관 가운데서도 유례가 드물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보게 되는 평양의 모습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김일성광장 양 옆의 건물이 다름아닌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는 사실을 나는 평양에 갈 때까지 몰랐다. 그저 로동당 당사나 의사당쯤 되는 줄로 짐작했다.

더욱이 북한은 박물관 소장품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이 우리 고고미술사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지어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 동산(動産)문화재의 95%는 남한에 있다고 자부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닌가.

###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연혁

지금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은 한국전쟁 뒤 잿더미의 평양에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1954년 9월에 완공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란봉 을밀대 가는 길에 있던 일제시기의 평양부립(부립)박물관으로 시작했다.

그때 평양박물관이란 국립이 아니라 부립이어서 요즘으로 치면 재정이 빈약한 시립박물관이었다. 1935년 설립 당시부터 해방 때까지 줄곧 관장을 맡아본 고이즈미 아키오의 회고록인 조선고대유적의 편력(1955년도료)에 따르면 유물은 고구려 화랑과 낙랑유물 등 평양 지역 출토품이 고작이었고, 그밖에 있다고 해박야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화 정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장정신 관장은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해방되고 백 날이 된 1945년 12월 1일 우리 박물관이 출범할 때는 불과 2천 점의 유물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깔려 있다. 1945년 8·15 해방 때 우리나라 박물관 사정을 보면 서울에는 총독부박물관과 이왕가 미술관이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국립박물관으로 합쳐진다. 그리고 경주와 부여에 분관이 있었다. 이밖에 개성과 평양에 부립박물관이 있었고, 공주에 공주고전현창회 진열실이 있는 정도였다.

해방이 되면서 38선이 그어졌을 때는 개성도 이남이었기 때문에 평양부립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박물관이 결국 남한에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해방 후 초대 국립박물관장이 된 김재원 관장은 개성부립박물관을 개성분관으로 승격시킨 다음 38선 근처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불안해 개성분관이 중요한 유물, 특히 고려청자의 명품을 모두 서울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진짜 한국전쟁이 터졌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했을 때, 개성박물관은 북한의 차지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소장 유물을 거의 빈털터리였으니 북한은 평양박물관 2천 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장 유물의 양과 질에서 북한은 애시당초 감히 남한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것이 남한의 자랑 아닌 자랑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많은 분야에서 그러했듯이 물질적인 부족을 정신적으로 극복했다. 북한이 8·15 해방과 동

시에 문화재 발굴에 열성을 보인 데에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장정신 관장은 당당하게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열심히 발굴하고 제작하고 수집해서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13만 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작하고’란 문화재 복제품을 말한다. 남한 박물관에서 ‘리플리카(정밀한 복제품)’을 도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일찍부터 복제품을 박물관 운영에 도입했고, 이를 위해 문화보존총국 산하에 문화유물창작사가 독립기관으로 있을 정도이다.

그 덕분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는 검은모루의 구석기 유물, 신의주 압록강변의 ‘미송리 토기’ 평양 원오리의 테라코타 불상 등 실물도 많지만 호모 에렉투스 시절의 검은모루 풍경 상상도, 고인돌을 끌고 가는 청도기인의 모형, 대성산성 배치도와 안안궁전 모형도, 안악3호 무덤 실물대 복원, 발해 상경의 석등 모조품 등 모조한 복제품이 전시장을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시기별로 진열하여 역사관을 만들어서 각급학교의 역사수업은 여기를 현장학습장으로 산아 매 단락이 끝나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견학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해 동무가 수도 없이 다녀 왔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보면 ‘진품과 복제품이 뒤섞인 엉망진창의 박물관’이라고 느끼거나 ‘미술품에 대한 안목의 결여된 사료관’이라고 폄하하기 쉽다. 우리가 오랫동안 남이 되었던 북한을 이해하려면 이렇듯 박물관처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곳까지도 남북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깊이 유념해야 한다. 남한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기념으로 북한의 사물과 형태를 액면 그대로 평가하면 오해 또는 불신을 사기 쉽다는 것을 박물관조차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박물관을 처음부터 천천히 빠짐없이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많은 실물 복제품 가운데 한국회화사를 전공하는 나로서는 개인적으로 안악3호무덤이 가장 반가웠다. 무덤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그림을 살펴느라고 나는 이 모형무덤 안에서 나갈 줄을 몰랐다. 밖에서 단장 선생이 그만 가자고 졸라도 나는 들은 척도 안했다. 나로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